

보도	2023.3.30.(목) 14:00	배포	2023.3.29.(수)		
담당부서	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	책임자	과 장	손재형	(044-202-7554)
		담당자	사무관	남성욱	(044-202-7557)
	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	책임자	과 장	고영호	(02-2100-2660)
		담당자	서기관	윤우근	(02-2100-2661)
	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	책임자	실 장	김봉균	(02-3145-5180)
		담당자	팀 장	최은실	(02-3145-5190)

2023년 퇴직연금 업무설명회 개최 (고용부-금융당국 공동)
“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은 ‘국민에게 신뢰받는 퇴직연금제도 운영’이라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정책과 감독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.”

1 개 요

- 고용노동부,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2023. 3.30일(목) 퇴직연금사업자 등 (이하 ‘금융회사’)을 대상으로 「2023년 퇴직연금 업무설명회」를 개최하였음
 - 급격한 저출산·고령화 등으로 ‘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 운영’은 연금산업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으며
 - 이에, 금융당국 등은 “2023년 퇴직연금 정책 및 감독 방향”을 설명*하고 참석자들과 질의·응답 및 별도 간담회 개최를 통해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등 열린 마음으로 쌍방향 소통을 실시함
- * 금융당국 등은 금융회사에 대해 One Message로 당부사항 전달
- 아울러, 자본시장연구원 남재우 박사를 초청하여 연금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*을 청취하는 등 퇴직연금시장의 당면 과제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 해법을 모색하였음

* 퇴직연금의 연금성 강화, 사업자의 충실한 의무 이행을 촉구 (👉 [\[붙임 1\] 참고](#))

(「2023년 퇴직연금 업무설명회」 개요 (👉 [\[붙임 2\] 참고](#)))

- (일시 및 장소) '23.3.30.(목) 14:00~15:40, 금감원 2층 대강당
- (참석자) 금융회사(은행, 보험 및 증권회사 등) 임직원 등 200명 내외
- (행사내용)
 - 주제발표 : 연금산업의 시대 과제 (자본시장연구원)
 - 업무설명 : 2023년도 퇴직연금 정책 및 감독업무 방향

- ◇ 퇴직연금의 연금성 및 보장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 추진
- '23년 상반기 중 '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' 수립 계획

- **이정한 노동정책실장**은 인사 말씀을 통해 퇴직연금은 他연금에 비해 시작은 늦었지만*, 가장 빠르게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으며

* 국민연금('88년), 개인연금('94년), 퇴직연금('05년) 順으로 도입

- 이제는 국민의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의 연금성·보장성 강화가 필요한 시기이고, 이를 위해 상반기 내 “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

- 한편, 금융회사 등에 **사전지정운용제도***(이하 ‘디폴트옵션’) 등 **新제도**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,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면서

*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(근퇴법 §21조의3)

- 최근 **소사회적**으로 추진하고 있는 “**연금개혁**”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당부함

【2023년도 퇴직연금제도 주요 정책 방향】

- ▶ 연금성 강화: 퇴직연금제도 단계적 의무화 추진, 중소퇴직기금제도 활성화, 중도유출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편 사항 논의 등
- ▶ 수익률 개선을 위한 신규제도(디폴트옵션 등) 안착 집중
- ▶ 운영체계 효율화: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제도 개편, 현물이전 활성화 등
- ▶ 홍보 강화: 민관협력 방식의 홍보방안 논의 등

【금융기관에 대한 당부 사항】

- ▶ 가입자 안내 철저: 원리금보장상품 자동 재예치 중단 등 디폴트옵션 관련 가입자 안내사항의 제공(올해 7.11까지 도입 및 지정 완료되도록 과정 관리)
- ▶ 서비스 고도화: 수익률 개선, 가입자 친화 서비스 제공 위해 서비스 고도화
- ▶ 근로자 수급권 보호 강화: 불안한 금융시장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위법 및 일탈 행위는 근로자 수급권 위협으로 연결 → 내부통제장치 재점검, 대응 시나리오 마련

- ◇ 금융회사 간 경쟁 촉진으로 시장참여자의 근본적 행태변화 유도
- 더 좋은 상품의 제공을 위한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여 가입자 위주의 시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

가.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중점 추진방향 설명

- 김미영 부원장보는 현재 퇴직연금시장은 저조한 수익률*, 시장 내 경쟁 혁신 부재**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며,

* 퇴직연금의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은 1.96%

** 신규 진입 및 퇴출이 활발하지 않고, 적립금 유치 위주의 양적 경쟁에 치중

- 2023년 한 해 동안 연금시장이 가입자 중심으로 개편되고 선의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감독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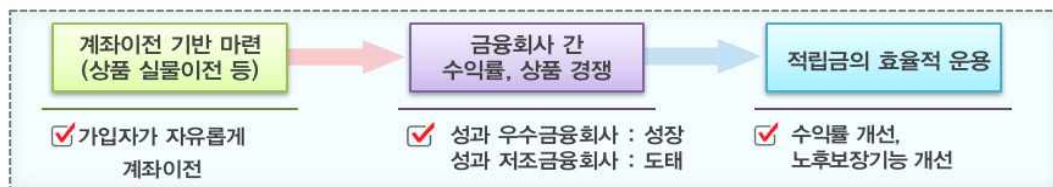
- 또한, 2023년 동안 ①규제의 선진화·합리화, ②연금시장 내 경쟁·혁신 촉진, ③연금접근성 및 홍보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

- 연금시장 내 시장 참여자의 근본적 행태 변화*를 유도하고, 궁극적으로 적립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힘

* 적립금 유치 위주의 양적경쟁 → 좋은 상품, 높은 수익률 제공 위주의 질적경쟁

연금시장 참여자 행태변화 과정

● 자유로운 계좌이전 체계 마련 → 금융회사 간 공정경쟁 촉진



- 한편, 금융회사 등에 퇴직연금의 '국민 노후소득 기여도'를 증대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함

나. 세부 업무과제

① 규제의 선진화·합리화

- 디폴트옵션 제도 안착을 위해 가입자에게 더 좋은 상품을 제공*토록 하는 한편, 新제도 정착상황을 점검**하여 잠재위험에 대응
 - * 원리금보장상품 금리는 보다 높게, 실적배당상품 수수료는 보다 낮은 비용으로 제공 ('22년 승인상품 : 원리금보장상품 금리가 평균보다 0.2%p ↑, 펀드수수료는 35% ↓)
 - ** 고용부 주관 '상황반 TF' ('22.9월~), 금감원 주관 '제도정비 TF' ('23.3월~) 운영 중
- 매년말 발생하는 회사 간 적립금 유치경쟁을 완화하고, 사업자와 非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제고 등 감독을 강화할 계획

② 연금시장 내 경쟁과 혁신 촉진

- 가입자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상품의 해지 손실 없이 금융회사만 변경할 수 있도록 '연금상품의 실물이전 방안'을 마련*
 - * 고용부 금융위·금감원, 예탁결제원 등 16개 기관(총25명)으로 구성된 TF 운영('23.2월~12월)
-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부적합한 상품을 자체 선별·정리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지도

③ 연금접근성 및 홍보 강화

- 폐업·도산으로 근로자가 잃어버린 퇴직연금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 방안*을 강구하고, 유관기관과 함께 홍보 지속
 - *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 조회 및 환급시스템을 마련, 가입자들의 연금수령을 적극 지원
- TV, 유튜브*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퇴직연금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국민의 퇴직연금 가입 및 연금수령을 유도
 - * 4월 중 디폴트옵션 홍보 유튜브 송출 예정, 금융감독원 "금융 쏙! 브리핑" 활용

4

업계와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간담회 실시

- 고용노동부,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(20개사) 등과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
 - 업계 동향 및 현안 등에 대해 '열린 마음'으로 청취하는 한편,
 - 업계로부터 미리 제출받은 애로·건의사항(10개 내외) 등에 대하여 검토의견 및 인식을 공유하고, 자유롭게 토론하였음

5

향후 계획

- 고용노동부,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,
 -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·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업계 및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(場)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

- ◇ 자본시장연구원 남재우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이 직면한 과제와 연금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등에 대해 제언

(연금자산의 연금화 강화)

- 현재 퇴직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이 미흡*하여 퇴직연금의 구조적 개혁이 지속 거론되고 있다며,

*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(9%)과 유사한 수준의 비용을 부담(8.3%)함에도 불구하고, 전체 연금소득에 대한 기여는 미미

※ 연금제도의 본질은 생애주기 내, 개인 간, 세대 간 자금 배분이며, 효율적 금융은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의 필수요건에 해당

- 많은 국민들이 연금자산을 유의미하게 축적하여 이를 기반으로 노후에 연금화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

[연금수령이 저조한 이유 및 대응방안]

- ▶ (현황) 현재 퇴직연금 수급(만 55세 이상)을 개시한 계좌 중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은 약 4.3%('21년 기준)에 불과
- ▶ (원인) 전문가들은 '사람들이 일시금보다 연금을 선호하나, 정작 연금수령을 하지 않는 연금퍼즐(Annuity Puzzle)'의 근본적 원인으로 연금 재원의 부족을 지적
- ▶ (대응) 퇴직연금 의무화, 중도 인출 및 일시금 수령 제한 등

(사업자의 충실한 수탁자 의무 이행)

- 사업자는 수탁자로서 “가입자 최선의 이익을 얼마나 충실히 견지하고 있는지”에 대해 스스로 자문해 보는 등 수탁자의무(fiduciary duty)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

1. [세션 1] 업무설명회 [14:00~15:40]

- ☐ (장 소) 금감원 2층 대강당 (공개)
- ☐ (참석자) 금융회사 임직원 등 200명 내외

순 서	세부 내용	비 고	시 간
개 회	인사 말씀 (고용부)	이정한 노동정책실장	14:00~14:05 ('5)
	인사 말씀 (금감원)	김미영 부원장보	14:05~14:10 ('5)
	퇴직연금 감독업무 중점 추진방향		14:10~14:15 ('5)
세션 I	연금산업의 시대과제 (가제)	남재우 자본시장연구위원	14:15~14:30 ('15)
	'23년 퇴직연금 정책방향 (고용부)	손재형 퇴직연금복지과장	14:30~14:55 ('25)
	'23년 퇴직연금 감독방향 (금융당국)	김봉균 연금감독실장	14:55~15:20 ('25)
	질의응답	-	15:20~15:40 ('20)

2. [세션 2] 간담회 [15:40~16:30]

- ☐ (장 소) 금감원 9층 회의실 (비공개)
- ☐ (참석자) 고용노동부 과장,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장,
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서기관,
금융회사 임직원 등 20명 내외

순 서	세부 내용	비 고	시 간
세션2	퇴직연금시장 업계 현황, 정책 및 감독 관련 애로사항, 건의사항 및 제언 청취	손재형 퇴직연금복지과장, 김봉균 연금감독실장, 윤우근 자산운용과 서기관 금융회사 임직원 등	15:40~16:30 ('50)